

공공기관 종사자의 공공성 인식유형 연구: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이서호*

김다솜**

홍성우***

배수호****

〈目 次〉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연구설계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논의

〈요 약〉

본 연구는 기존에 논의되어왔던 공공성 담론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주체적 인식에 기반한 공공성 유형과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그 어느 집단보다 공공적 가치가 기대될 수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공공성 인식 유형화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공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주체성을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결과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성에 대한 인식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제Ⅰ유형은 '절차적 공정성에 기반한 공공성', 제Ⅱ유형은 '숙의에 기반한 공공성', 제Ⅲ유형은 '공리주의에 기반한 공공성'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각 유형은 공공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 과정적 측면, 성찰과 숙의적 측면, 공익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같은 유형화는 개념적 함의에 따른 공공성 담론과는 상이한 내용적 속성을 나타내는데, 개인의 주체성을 반영한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지향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공공정책의 세부 사항에 유용한 사회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공공성, 공공성 인식, 공공기관 종사자, Q 방법론】

* 제1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shlzzang11@skku.edu)

** 공동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과정(iye126@naver.com)

*** 공동저자, 대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부교수(hsw89@daejin.ac.kr)

****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baes@skku.edu)

논문접수일(2024.1.24), 수정일(2024.3.10), 게재확정일(2024.3.12)

I. 서론

동서양 모두에서 오랜 역사를 거치며 공사관 및 공공성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풍부하게 이뤄져 왔다(배수호·홍성우, 2020). 공공성 개념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 측면을 지니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의 공적 가치 함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갖는다. 무엇보다 현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가치와 밀접한 연계를 지녀 개념적 유동성도 예상할 수 있어 역사적·사회학적 맥락에 대한 논의 또한 개념의 정립화를 위한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시사할 수 있다. 즉, 공공성 개념은 연구자의 학문적 배경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및 공공적 역할에 대한 함의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 일반론적 견지(見地)로 볼 수 있겠다. 이는 개념에 대한 심층적 논의과정에서 도출되는 현 시대의 바람직한 가치 지향성과 결부될 수 있으며, 각 구성원에게 내재된 공공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함축적 의미는 공공성 개념의 다차원적 속성과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공공성 연구는 개념적 접근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험적인 연구를 시도할 정도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임의영, 2023a). 이와 관련하여 공공성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김선경·박정민, 2018). 즉, 공공성의 다차원적 개념을 이론적으로 하위 차원으로 분류하여 구분적 개념화에 따른 사회적 시사점을 파악하는 연구와 더불어,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기반한 공공성의 선행적 개념 정의 과정을 거쳐 이에 대한 계량적 접근을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뤄졌다. 이 같은 상이한 연구 지향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에 대한 심층적 논의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는 점에서 동일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관찰될 수 없는 현상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속성을 정의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며, 감각에 의해 인상, 지각 또는 상당히 복잡한 경험에서 창조된 논리적 구성물로도 볼 수 있어 선행적으로 정의되고 합의된 개념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현 시대를 향유하는 (문제)인식론적 관점에서도 틀아볼 필요가 있다. 비록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이미 전개되고 있지만(Pesch, 2008), 현실을 직시하는 개인의 주체적 인식과 선행적 이론의 구분적 접근은 차별적일 수 있음을 상식적 견지에서 예상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가치에서 나아가 개인의 인식을 전제한 유형화를 살펴보는 것은 경험적으로 구성된 다른 차원의 공적 함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공공성에 대한 주체적 인식의 유형화 담론은 이상과 현실(인식) 간

의 간극을 좁혀 공적 가치의 시대적 함양을 위한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주체는 일반시민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공적 가치를 기대할 수 있고 그들이 향유하는 각종 공적 요인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자본 및 각종 정책적 기반요소들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공직에 종사하는 자들의 공공성 인식은 우리 사회에 올리는 경종이 그 무엇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는 바, 공적 가치의 방향성을 명료하게 살피볼 수 있어 사회 일반의 올바른 정책적 기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개인의 내적 준거에 따른 인식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으로서 Q 방법론을 활용한다. Q 방법론은 개인의 현상학적 세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한 개인의 사적인 견해를 측정하는 기법으로서 인간의 주관성 탐색을 위한 방법론이다. 즉, 개인의 주관성을 과학적·통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Brown, 1980; Moulton, 2009). Q 방법론을 통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공공성 인식 유형을 구체적으로 탐색해 봄으로써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공적 함의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개념적 가치로서의 공공성

특정 개념은 사회 현상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사고형식으로 인간 사고 활동의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행정학에서도 ‘관료제’ 개념이니 ‘공익성’ 개념이니 하며 개념적 접근을 기본적으로 전제하지만, 개념 그 자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는 작업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는 기본적으로 복잡한 경험에서 논리적 구성으로서 진술된 준거틀(frame of reference)안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현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술적 개념화’란 다양한 준거 기준에 입각한 다양한 속성을 탐구하고 궁극적으로 그 개념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성’은 현상이 아닌 추상적 관념으로서 시대적·경험적으로 구성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배수호·최태현(2021)은 공공성에 대한 관심은 반드시 특정 학문(행정학)에 한정될 수 없다고 본다. 이는 개념적 복잡성·다차원성 등으로 인해 연구자마다 상이한 가치관(준거틀)을 전제하며 저마다 다양한 이념적 및 개념적 구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공공성 개념에 대한 합의된 체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합의를 위한 노력보단 개념의 다차원성에 기인한 지속적인 담론이 공공성의 가치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계에

서도 ‘우리 시대의 공공성은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김도영·배수호, 2016). 구체적으로, 임의영(2010)은 공공성 개념을 공(公)과 사(私)의 대립적 관점에서 사적인 특성과 대별되는 것을 공적 영역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기본적으로 사를 통해 공의 구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enn & Gaus(1983)는 공·사 구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공공성의 개념화를 시도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접근성(access), 공익(interest) 및 주체(agency)를 통해 공공성을 바라본 바 있다. 이는 특정 장소나 정보 등에 쉽게 접근할수록, 공익에 종사하는 사람일수록, 공익을 추구하는 정도가 강할수록 공공적 가치에 더욱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성은 그 자체가 논쟁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겠으나, 공공성의 개념화는 기본적으로 사에 대한 대별적 관점에서 시작된다. 즉, ‘사 가 아닌 ‘공’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공공성의 개념화가 가능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공적인 것(the public)’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한상(2009)은 ‘공적’ 속성에 기인하여 공공성을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거쳐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으로 정의한다. 이는 공공성의 공적 속성에 있어 공리 추구를 위한 절차적 과정을 중요시하는 개념화로 보인다. 백완기(2007)도 다양한 공적 속성 중 공공복리 추구를 위한 집합적 행동에 주목해 공익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공성의 다양한 하위 속성 중 일부 편향된 관점은 여타 다른 개념적 속성을 도외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소영진(2003)은 공공성의 특성으로 전체 혹은 다수에 관한 일, 권위, 정부, 전유 불가능성, 이타성 혹은 공익성을 제시하고 있듯이, 공공성 개념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그 중 공익성을 공공성 개념의 핵심 내용으로 상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익성 또한 다차원적 함의를 내포하는 개념적 속성으로 인해 현대 행정에서 추구하는 이념적 가치와 연계되어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게 사실이다. 특히 민주적 가치를 밑바탕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경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시민민주주의)와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공민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공민민주주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익적 가치는 우리 사회의 민주성 함양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전제로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임의영, 2010). 반면, 정정길(2022)은 공익성의 경우 정책의 내용이 ‘공익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며 민주성은 정책의 내용이 국민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지지를 얻는가에 관한 것이라 한 바 있어, 두 개념에 대한 구분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공공성을 규정짓는 개념으로써 공익성과 민주성이 일반적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양자 간의 연관성에 관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영진(2008)도 공공성을 구현 주체와 방법 등에 주목해 민주성을 강조하기도 하며, 공공성의 내용을 직접적으

로 규정하는 실질적 특성과 관련지어 공익성, 공리, 신뢰 및 정의 등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상기의 논의들은 궁극적으로 공공성 개념에 있어 공적인 특성에 기인한 다차원적 함의를 보여주는 것이며, 공공성을 구성할 수 있는 개념적 ‘추상성’은 실제로 ‘현상’으로서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인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보편적 관념에 기반한 ‘정성적’ 설명 방식은 특정 현상에 대한 적실한 진단 및 가시적 지표 제시를 통한 명확한 공적 가치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지닐 수밖에 없다. 즉, 공공성과 같은 추상적 가치를 정밀하게 바라보고자 하는 일련의 논의는 개념의 진보와 이에 내재될 수 있는 공적 함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는 있으나, 사회 실천을 위한 ‘도구적(instrumental)’인 지표로서 객관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공성의 개념적 속성과 유형화(준거틀)에 대한 검토는 담론의 풍요성과 ‘어떠한 공공성인지’ 혹은 ‘이러한 공공성은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관한 해답을 모색하는 데 주요한 전제가 될 수는 있다.

2.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및 인식론적 구분

다차원적 함의를 내포하는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함의는 공과 사의 구분에 대한 필요성 혹은 공적인 것에 대한 복합적 특성과 연관된다. 이에 공공성의 개념에 관한 담론은 ‘어떤 공공성인가’를 파악할 수 있어 특정 개인이 공공성을 바라보는 데 어떠한 입장과 성찰 수준을 지니고 있는지를 가늠케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마다 가치 지향성이 다르며 특정 개념에 대한 성찰 수준이 각기 다를 수 있음을 가정한다면, 공공성의 개념적·이론적 유형화는 ‘어떤 공공성인지’, ‘이런 공공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다. 이에 임의영(2010)은 공공성 유형화를 통해 공공성 담론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으며, 이는 입장 간의 경쟁에서 외재적 비판과 내재적 비판이 가시화됨으로써 각각의 입장을 정교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촉진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개념적 유형화는 기본적으로 각종 이론적 틀에 대한 논의의 촉진을 도모해 우리 사회에 유효한 공적 함의를 위한 풍부한 담론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공공성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개념화는 학자 간의 개념 수렴화가 아직 정립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개념적 논쟁과 담론이 공공성의 다차원성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어 심지어 수렴화와 관련된 획일화된 개념 정의가 우려스러운 정도다. 이와 관련하여 배수호·김도영(2014)은 공공성에 대한 시혜적 관점에서 단순한 ‘일반적 이해’는 오히려 ‘공공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일차적 이해를 넘어서 복합적 담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필요할 수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의 담론화는 궁극적으로 공공성 개념의 유형화와 연관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개념적 담론의 풍요와 이론적 정교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주요한 시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공공성은 기본적으로 이념적 가치이기에 규범적 및 질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평가되는 바, 현재까지도 그러한 연구추세가 주를 이뤘다(김동규, 2022; 백민정, 2022; 임의영, 2022, 2023b; Barber, 2003; Haque, 2001; Kaul, 2005).

반면,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이론적 접근에서 나아가 개인의 내면과 주체성에 기반한 인식 유형화 또한 새로운 차원의 공적 함의를 내포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인식에 기반한 접근은 결과의 가시적 측면에 있어 정량적 접근이 요구될 수 있다. 즉, 복잡다단한 속성을 내포하는 공공성에 대한 개별 주체의 인식과 관점은 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그리고 각종 생활상의 실천과 결부될 수 있는 것으로 개념적 담론과는 차원이 다른 실체적(현상학적) 체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공성에 대한 개별 주체 인식의 본질, 제 형식 등에 관한 담론(유형화)의 필요성이 요구될 수 있는 것이며, ‘공공성의 진리’에 관한 질문 역시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공공성에 대한 풍부한 개념적 담론을 전제로 하는 바, 인식과 개념(이론) 간의 상호성 및 체계적 비교 가능성을 통해 ‘공공성이란 무엇인가’라는 큰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도 가능하다. 특히 공공성 인식에 대한 담론에 있어 정량적·가시적 지표로서 유형화하는 것은 공공성 개념에 대한 질적 탐구와 인식론적 구분에서 상호 간의 지속적인 비교를 통해 함의 도출을 가능케 하고 공공성 개념의 풍요로움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임의영(2010)은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유형화를 위한 노력은 개념의 구체화를 위한 차원으로써 정량적 연구의 가능성도 시사하며 탐색적 및 양적 접근의 필요성도 어느 정도 수용한 바 있다. 즉, 정량적 연구가 방법론적인 한계로 인하여 의미 있는 내용들을 누락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규범적 연구나 질적 연구와 함께 보조적 및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공공성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내면의 주체적 인식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를 통해 공공성의 개념적 가치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이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공공성 관점을 더 명료하게 살펴볼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개념의 이론적·개념적 유형화도 개인의 주체적 관점이 개입될 여지가 있겠으나 내면의 인식론적 접근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유형으로서 이론과의 괴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전지한다면, 인식에 기반한 공공성 탐구는 일견 타당한 사회적 실천가치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및 인식론적 구분은 엄연히 다른 체계의 공적 함의를 각기 내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개념적 가치에서 나아가 실체적 인식을 통한 공공성 유형화는 시대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공적 가치의 바람직한 지향점을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이론적·개념적 접근을 통한 공공성에 대한 검토(구분화)는 정성적·선

협적인 것으로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올바른 이념적 가치 및 다양한 공적 기대의 함양을 위한 객관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공공성의 주체적 인식에 기반한 유형화는 정량적·가시적 지표로서 현 사회를 직시하는 시대적 문제의식 및 사회상과 연관되어 개념적 함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공적 방향성을 명료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Ⅲ. 연구설계

1. Q 방법론 적용의 필요성 및 의의

스티븐슨(W. Stephenson)이 창안한 Q 방법론은 인간 행위 연구를 위한 것으로 응답자의 주관적 인식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응답자 스스로의 언어로 자신을 드러내고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자결적’인 연구라고도 명명된다(박현정·김휘경, 2022). 즉, 주어진 가설과 유사성을 가진 종속변수의 집합을 증명하고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축소 방법을 활용했던 기존의 방법론과는 달리, Q 표본에 대한 식별을 위해 개인별 요인 분석을 사용하며 스스로 자신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분히 주관성을 고려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McGarty & Haslam, 2003; Watts & Stenner, 2012). 특히 Q 방법론은 개인의 의식에 기반을 두어 이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려는 시도로 소위 ‘의식의 과학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관적 요소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잠재적이고 복잡하며 사회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연구 질문에 대하여 일관성을 부여할 수 있다(Stainton, 1995).

이 같은 Q 방법론을 활용하여 본 연구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공공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하여 실제적으로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으며, 공공적 가치의 내재화 및 공익성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공적 함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공공성의 개념적 함의에서 나아가 개인의 주관성을 반영한 공적 가치에 대한 실천적 논의를 면밀하게 짚어볼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2. Q 방법론의 과정

1) Q 표본의 설정

Q 표본을 선정하고 분류하는 과정엔 Q 모집단으로부터 합리적이고 타당한 Q 표본을 추출

하는 절차적 단계가 필요하다. Q 모집단은 기존 방법론에서 설명하는 n명의 개인에 대한 모집단이기보다는 특정 주제를 향유할 수 있는 집단이며, 여기서 추출된 Q 표본에 대해 n명의 개인(P 표본)이 응답한 것을 토대로 척도가 매겨진다(Stephenson, 1936; Watts & Stenner, 2012). 문헌 연구 등을 통해 수집 및 추출될 수 있는 Q 표본은 분류하는 응답자의 의견이 표현될 수 있는 자아 참조적(self-referent)이어야 하는데, 구체적 표본 구성 방식으로 구조화된 추출방식과 비구조화된 추출방식으로 구분된다(김홍규, 2008; 김홍규·최준환, 2009). 우선 구조화된 추출방식은 분산분석 원리를 반영한 추출설계 및 피서식 실험(Fisherian experiment)에 따라 Q 표본을 구성한다(MeKeown & Thomas, 1988).¹⁾ 반면, 비구조화된 추출방식은 연구자가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진술문을 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통계학적 설명 없이 연구목적 및 주제와 부합할 수 있는 중요한 의견, 사상 및 문헌 등을 반영하여 구성한다(MeKeown & Thomas, 1988).²⁾

본 연구는 비구조화된 추출방식을 반영하면서 진술 문항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쳤다.³⁾ 이는 ‘내부로부터의 이해’를 도모하는 Q 방법론의 특성상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가 아닌 ‘자결적 정의’가 방법론적으로 더욱 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홍규·오세정, 2008). Q 표본에 대한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P 표본의 주관적 인식을 따르기 때문에 자결적 주관(operant subjectivity)으로 볼 수 있다(김정훈·이동규, 2021).

나아가 Q 표본 즉, 진술문은 연구 주제에 대하여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표본의 수가 너무 크면 연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김순은, 1999; 김홍규, 2008). 또한 연구 주제의 대표성이 압축되어 있으면 Q 표본의 크기는 고려 대상이 되지

1) 구조화된 추출방법은 과학적 설계를 통해 Q 진술문을 구성하므로 과정의 왜곡과 편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절차적 과정의 복잡성, 난해성 등으로 실행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연구는 비구조화된 추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비구조화된 추출방식에 따르면, 연구주제 및 목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진술문을 추출할 수 있어 연구대상자들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상대적으로 편리하게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연구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Q 표본에 완전히 포함될 수 없어 몇몇 요소가 과장, 생략되거나 혹은 가치판단에 따라 내용상에 중첩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존하여 추출되므로 반박 가능성과 다른 대안과의 비교 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Q 방법론의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한다. 이에 김홍규(2008)는 Q 진술문은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관성’을 띄어야 함을 강조하고, 진술문 구성에 있어서 가치판단의 개입을 이론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Q 방법론을 통해 공공성의 유형화를 시도한 김선경·박정민(2018)의 선행연구와 공정성 인식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통해 연구한 김필(2017), 사회통합실태조사(2016), 세계가치관조사(WVS) 등을 참고하여 진술문을 구성한 뒤 연구자의 (자결적) 판단에 따라 진술문 문항을 추가로 작성하였으며 총 22개의 진술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2단계에서는 연구진의 내부 회의를 거쳐 이를 33개의 진술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3단계에서는 외부 자문위원회와의 논의, 관련 서적 및 논문 검토를 통해 최종 30개의 Q 표본이 확정되었다.

않는다(Watts & Stenner, 2012). 따라서 각종 문헌 및 연구자료에 대한 Q 모집단으로부터 최종 30개의 Q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진술문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공공성 개념 Q 표본

Q 진술문	비고
Q1. 공공성은 정보는 숨겨지는 것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다.	김선경·박정민 (2018)
Q2. 공공성은 각 세대가 정의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Q3. 공공성은 구성원의 비판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Q4. 공공성은 국민이 대표를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다.	세계가치관조사 (WVS)
Q5. 공공성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Q6. 공공성은 투명성을 목적으로 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이다.	
Q7. 공공성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저자 작성
Q8. 공공성은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될 때 실현될 수 있다.	
Q9. 공공성은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Q10. 공공성은 보통교육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시작한다.	김선경·박정민 (2018)
Q11. 공공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Q12. 공공성은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Q13. 공공성은 소수의 사람이 아닌 사회 전체 구성원과 관련된 것이다.	저자 작성
Q14. 공공성은 사회적 소수자 등 일부 시민이 배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Q15. 공공성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이다.	
Q16. 공공성은 모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상태라 생각한다.	세계가치관조사 (WVS)
Q17. 공공성은 누구나 사회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	
Q18. 공공성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19. 공공성은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김필(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2016)
Q20. 공공성은 개개인의 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Q21. 공공성은 소득의 형평을 의미한다.	
Q22. 공공성은 개인의 노력 대비 적절한 보상이 주어진 것이다.	저자 작성
Q23. 공공성은 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빈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Q24. 공공성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고용주들이 이민자들보다 원주민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다.	
Q25. 공공성은 교육기회의 출발선이 공정함을 의미한다.	저자 작성
Q26. 공공성은 취업기회의 출발선이 공정함을 의미한다.	
Q27. 공공성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Q28. 공공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의 공정을 의미한다.	저자 작성
Q29. 공공성은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Q30. 공공성은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P 표본의 선정

Q 방법론은 질적 연구의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P 표본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특성에 기반한다(김홍규, 1990). 따라서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 대상자들이 P 표본으로 설정될 수 있다면 표본의 보편 타당성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선 P 표본이 Q 표본에 대한 선호 및 주관을 설명하는 데 Q 방법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40~60명의 구성이 적절하다고 보기도 한다(Stainton, 1995). 그러나 ‘집단’에 속한 다수의 개인이 공유하는 관점임을 입증하여 이러한 일관성을 바탕으로 주제를 이해하기 때문에 P 표본의 규모는 중요치 않으며 현격히 적은 수의 P 표본으로도 효과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Watts & Stenner, 2012). 또한 Q 방법론은 질적 연구의 특징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P 표본을 구성한다면 개인의 이해에 대한 복잡성 등이 무효화될 수 있어 되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Watts & Stenner, 2012). 이에 김순은(2010)도 연구 목적과 관련된 연구 대상자들이 고루 분포되었다면 적절한 P 표본으로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표본 수로서 약 30~50명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관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며 2023년도 1학기 서울 소재 A대학교 정책연구과정 및 공공기관 관리자과정에 재학 중인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책연구과정 총원 34명 및 공공기관 관리자과정 총원 19명 중 유효하게 응답한 각각 24명과 7명의 P 표본이 확보되었으며, 이중 최종 3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각 교육생은 전국 각지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근무기관 및 근무연수(12~35년)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P 표본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P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을 실시한 결과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 이상으로 나타난 유형이 9개가도 출되었다. 99%의 신뢰수준에서 표준오차와 요인적재량을 산출한 결과 값이 0.471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해당 적재량 값이 두 개 이상 포함한 요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김홍규, 2008)⁴⁾. 이때 0.471 이상의 값을 가진 요인 적재량이 두 개 이상 나타난 유형으로 I, II, III을 확인할 수 있어, 본 연구는 3가지 유형으로 설정해 배리맥스 회전을 실시했다. 요인 회전을 통해 나타난 각 유형에 속하는 P 표본과 그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여기서 음영이 나타나지 않은 P5, P6, P27은 중립적 입장을 나타내는 P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4) 특정 요인과 소트에 대한 상관관계 계수인 요인 적재량을 산출하기 위해 표준오차(SE_r)를 진술문의 수 ($N=30$)를 대입해 계산한 결과 $SE_r = \frac{1}{\sqrt{N}} = \frac{1}{\sqrt{30}} = 0.18$ 이 산출되었다. 신뢰도 99% 수준에서 유의미 하려면 $2.58(SE_r)=0.471$ 이상의 값을 가진 요인적재량이 2개 이상 존재해야 한다.

〈표 2〉 P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요인적재량

p	나이	성	근무기관	근무년수	제Ⅰ 유형(N=9)	제Ⅱ 유형(N=12)	제Ⅲ 유형(N=7)
P1	58	남	서··공단	28	-0.0183	0.1191	0.6872
P2	52	남	한··공사	25	0.7673	0.1021	0.1264
P3	57	남	한··은행	33	0.6644	0.2094	0.1694
P4	55	남	한··공사	29	0.3900	0.5188	-0.0975
P5	56	남	한··공사	28	0.0222	0.3534	-0.0103
P6	53	남	한··원	25	0.2195	0.2191	0.0784
P7	47	여	한··회	19	0.2490	0.7048	-0.0358
P8	56	남	한··원	28	-0.2437	0.4453	0.0978
P9	57	여	한··공사	35	0.5380	0.2014	0.2232
P10	46	남	한··회	18	0.7587	0.0514	0.1481
P11	52	남	한··공사	30	0.6163	-0.001	0.1317
P12	58	남	서··공단	28	0.3592	0.0684	0.4960
P13	43	남	한··공단	18	-0.1623	0.6752	0.3242
P14	52	남	한··원	27	0.1661	0.4542	0.3842
P15	53	여	한··공사	29	-0.1061	0.2405	0.7849
P16	51	남	국··공단	21	0.0768	0.5172	0.3796
P17	57	남	한··공사	31	0.2021	0.8072	0.1374
P18	57	남	한··공사	25	0.1044	0.5329	-0.05
P19	57	남	한··공사	30	0.0936	0.5768	0.5185
P20	57	남	한··공사	31	0.7879	0.1435	-0.1089
P21	57	남	한··공사	30	0.2903	-0.3708	0.6001
P22	44	여	한··공단	17	0.5738	0.2104	0.3541
P23	46	여	한··공단	18	0.1895	0.6085	0.1169
P24	53	남	한··공사	28	0.4388	-0.0975	0.5002
P25	57	남	한··은행	30	-0.6064	-0.0199	0.3173
P26	56	남	국··공단	28	0.5963	-0.1307	0.5679
P27	36	여	한··재단	12	0.3334	0.2714	0.3162
P28	57	남	금··원	30	0.3714	0.5369	-0.1993
P29	57	남	한··은행	30	0.0204	0.5295	0.1884
P30	45	남	한··공단	19	0.5143	0.1921	0.5805
P31	56	남	한··공사	27	0.0526	0.4555	0.5614

3) Q 분류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의 Q 분류과정에서 응답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

했다. 그런 다음 응답자가 Q 표본으로 선정된 30개의 진술문 카드를 읽으면서 자신의 마음 속에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심을 두어 분류·해석하도록 안내하였다. Q 분류는 정책연구과정 및 공공기관 관리자과정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진술문의 순서에 따른 개인 인식의 편향을 예방하고자 공공기관 관리자과정 교육생의 Q 분류는 진술문의 구성을 역순으로 배치하여 진행했다.

Q 분류 작업을 진행하는 데 통상 정규분포의 형태로 분류의 틀을 제시하는 경우와 Q 표본의 분류를 연구 대상자의 자의에 위임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를 강제배분방식(forced distribution), 후자를 자유배분방식(unforced distribution)으로 구분되는데 보통 Q 연구의 전통은 전자가 선호되고 있다(Brown, 1980; 김순은, 2007). 본 연구도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 분포시키는 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의 Q 분류는 가장 긍정(+4)에서 가장 부정(-4)의 9점 척도로 이루어진다(〈표 3〉 참조).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Q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 번호를 확인하여 가장 동의하지 않는 문항(-4)을 1점, 가장 동의하는 문항(+4)의 경우 9점을 주어 순차적으로 점수화하여 코딩한 후 입력했으며, PQ Method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을 시도했다(김흥규·오세정, 2011).

〈표 3〉 Q 분류 분포표

진술 문항수	2	3	3	4	6	4	3	3	2
점수	-4	-3	-2	-1	0	1	2	3	4

IV. 분석 결과 및 해석

1. 분석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공공성 인식유형의 분석 결과에서 총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제1유형 9명, 제2유형 12명, 제3유형 7명이 각각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의 입장을 가진 P 표본 3명은 분석 결과에 따라 표본에서 제외되었다. 유형별 아이겐 값(eigen value), 설명분산 비율(variance), 그리고 총 변량(total variance)의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에서 아이겐 값이 1 이상으로 나타난 유형은 총 9가지였으며 제 I 유형 8.10, 제 II 유형 3.649, 제 III 유형 2.804 순으로 나타났다. 전술하였듯

이, 요인 적재량 등을 검토해 3가지 인식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며 배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여 누적변량 및 설명변량을 확인하였다. 3가지 유형에 대한 누적변량(설명력)은 46%로 높게 나타났는데, 대체로 누적변량이 25% 이상의 경우 의미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김홍규, 2008).

이들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 5>와 같다. 제Ⅱ유형과 제Ⅲ유형이 가장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으며($r=.390$), 제Ⅰ유형과 제Ⅱ유형이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냈다($r=.354$). 대체적으로 상관계수 .40 이하로 나타나 유형 간의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유형 간의 뚜렷한 구분이 가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정지양 외, 2021).

<표 4> 각 유형의 아이겐 값 및 변량

	제Ⅰ유형	제Ⅱ유형	제Ⅲ유형
아이겐 값	8.0974	3.6489	2.8038
설명변량(%)	26%	11%	9%
누적변량(%)	26%	37%	46%

<표 5> 유형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제Ⅰ유형	제Ⅱ유형	제Ⅲ유형
제Ⅰ유형	1		
제Ⅱ유형	0.3547	1	
제Ⅲ유형	0.3593	0.3904	1

2. 유형별 해석

Q 방법론에 따른 공공성 인식유형의 분석 결과에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각 유형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와 특성을 해석하고 인식에 기반한 공공성을 실제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토대로 각 유형에 대한 명명을 시도했으며 이는 유형별 Z값이 ± 1.00 이상을 보인 진술문의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선경, 2020; 김선경·박정민, 2020). 해당 진술문에 대해 Z값이 양수(+)인 경우 긍정적으로, 음수(-)인 경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 제Ⅰ 유형: 절차적 공정성에 기반한 공공성

〈표 6〉은 제Ⅰ 유형에 속한 P 표본 9명이 인식하는 공공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진술문은 ‘공공성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Q27, 1.994),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의 공정을 의미하는 것이다’(Q28, 1.46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술문 ‘공공성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고용주들이 이민자들보다 원주민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다’(Q24, -1.94), ‘공공성은 소득의 형평을 의미한다’(Q21, -1.109) 순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이 같은 공공성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은 결과의 과정적·절차적 측면을 강조하며, 기회의 공평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과의 공정(소득의 형평성 및 개개인의 합 추구 등)이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절차와 과정의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능력이 ‘공평한 기회’ 아래 ‘절차의 타당성’을 갖추어 사회 일반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공공선에 부합할 수 있는 조건적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결과적 정의보다 절차적 정당성(정의)을 강조하는 것으로, ‘절차적 공정성에 기반한 공공성’으로 명명하였다.

〈표 6〉 제Ⅰ 유형에서 Z값 $\geq \pm 1$ 이상을 보인 진술문

진술문	Z값
Q27 공공성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1.994
Q28 공공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의 공정을 의미한다.	1.465
Q15 공공성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이다.	1.377
Q12 공공성은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1.307
Q7 공공성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1.173
Q23 공공성은 정부가 부자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빈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413
Q20 공공성은 개개인의 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1.583
Q21 공공성은 소득의 형평을 의미한다.	-1.909
Q24 공공성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고용주들이 이민자들보다 원주민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다.	-1.941

2) 제Ⅱ 유형: 속의에 기반한 공공성

〈표 7〉은 제Ⅱ 유형에 속한 P 표본 12명이 인식하는 공공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진술문은 ‘공공성은 각 세대가 정의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Q2, 1.870), ‘공공성은 구성원의 비판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Q3, 1.53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술문 ‘공공성은 개개인의 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Q20, -.815), ‘공

공공성은 모두가 공정하게 부담해야하는 것이다'(Q12, -.616) 순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이 같은 공공성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개인 간의 생각, 정의 및 상황 등에 대한 가치 지향성이 차별적일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이는 Q3의 '비판적 성찰'이라는 개념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 개인이 인식하는 특정 사물, 현상에 대해 반성하고 살피는 일련의 과정과 작용 등은 개별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공평함 및 개개인의 합에 기인한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향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이 성찰과 반성, 사고의 자유 등을 통해 개별 문제에 대한 외면화·객관화를 도모하는 지향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같은 특성들을 반영하여 '숙의에 기반한 공공성'으로 명명하였다.

〈표 7〉 제Ⅱ유형에서 Z값 $\geq \pm 1$ 이상을 보인 진술문

진술문	Z값
Q2 공공성은 각 세대가 정의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1.870
Q3 공공성은 구성원의 비판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1.533
Q1 공공성은 정보는 숨겨지는 것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다.	1.346
Q28 공공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의 공정을 의미한다.	1.341
Q25 공공성은 교육기회의 출발선이 공정함을 의미한다.	1.296
Q13 공공성은 소수의 사람이 아닌 사회 전체 구성원과 관련된 것이다.	1.014
Q21 공공성은 소득의 형평을 의미한다.	-1.509
Q24 공공성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고용주들이 이민자보다 원주민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다.	-1.509
Q12 공공성은 모두가 공정하게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1.616
Q20 공공성은 개개인의 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1.815

3) 제Ⅲ유형: 공리주의에 기반한 공공성

〈표 8〉은 제Ⅲ유형에 속한 P 표본 12명이 인식하는 공공성의 특성을 나타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 진술문은 '공공성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Q11, 2.106), '소수의 사람이 아닌 사회 전체의 구성원과 관련된 것이다'(Q13, 1.99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성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고용주들이 이민자보다 원주민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다'(Q24, -1.849), '공공성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Q5, -1.678) 순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공공성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은 사회 전체에 대한 공리적 관점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대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공공성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소수의 희생이 전제되는 경우라도 다수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개인의 이익과 손실 간의 비교를 통해 최대치의 효용을 추구하는 관점을 지향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공평한 부담(Q12)’과 ‘소득의 형평(Q21)’보다 사회 전체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 공리주의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지향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하여 ‘공리주의에 기반한 공공성’으로 명명하였다.

〈표 8〉 제Ⅲ유형에서 Z값 $\geq \pm 1$ 이상을 보인 진술문

진술문	Z값
Q11 공공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2.106
Q13 공공성은 소수의 사람이 아닌 사회 전체 구성원과 관련된 것이다.	1.997
Q15 공공성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이다.	1.196
Q8 공공성은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될 때 실현될 수 있다.	1.142
Q12 공공성은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1.437
Q21 공공성은 소득의 형평을 의미한다.	-1.440
Q5 공공성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1.678
Q24 공공성은 일자리가 부족할 때 고용주들이 이민자들보다 원주민을 먼저 고용하는 것이다.	-1.849

3. 공공성 인식 유형 간의 차이 비교분석

다음으로 공공성 인식 유형 간의 차이 비교분석을 통해 세 유형에 대한 특성을 더욱 정교하게 살펴보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를 보이는가’ 및 ‘특정 진술문에 대한 유형 간의 인식은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은 인식에 기반한 각 유형의 구체적 특성을 비교론적 관점에서 제시·설명할 수 있다. 각 유형에 대한 Z값 차이에 따른 절대값이 클수록 높은 수준의 상반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교분석 결과는 ‘제 I 유형과 제Ⅱ유형 간의 차이’, ‘제 I 유형과 제Ⅲ유형 간의 차이’, ‘제Ⅱ유형과 제Ⅲ유형 간의 차이’ 순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1) 차이 비교분석 결과: 제Ⅰ유형과 제Ⅱ유형

제 I 유형과 제Ⅱ유형이 공공성 인식의 구체적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 9〉에 Z값의 차이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술문 ‘공공성은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Q12, 2.924), '공공성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Q27, 2.85) 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진술문 Q12과 Q27의 경우 각각 제 I 유형에선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제 II 유형에선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 반면, 진술문 Q18과 Q3의 경우, 제 I 유형에선 부정으로 인식하였으나 제 II 유형에선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제 I 유형의 경우 개인 간의 상호 공평함을 전제로 한 사회적 가치의 동일한 부담을 전제하고 있으나(Q12, Q27), 제 II 유형에서는 집단적·공동체적 가치보다 현실에서 향유되는 세대적 속성을 반영한 개개인의 자유, 개인의 비판적 성찰·숙의 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Q3, Q18). 따라서 '제 I 유형: 절차적 공정성에 기반한 공공성' 과 '제 II 유형: 숙의에 기반한 공공성'은 동일한 기회에 대한 부여, 공평 부담에 대한 가치 및 비판적 성찰 등에 있어 상반된 인식을 통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9〉 제 I 유형과 제 II 유형 간 차이가 나타난 진술문(차이 $\geq \pm 1$)

진술문	유형 I	유형 II	차이
Q12 공공성은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1.307	-1.616	2.924
Q27 공공성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1.994	-0.856	2.85
Q15 공공성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이다.	1.377	-0.592	1.969
Q7 공공성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1.173	-0.419	1.592
Q1 공공성은 정보는 숨겨지는 것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다.	0.16	1.346	-1.186
Q18 공공성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0.997	0.427	-1.423
Q2 공공성은 각 세대가 정의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0.131	1.87	-1.74
Q3 공공성은 구성원의 비판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0.441	1.533	-1.974

2) 차이 비교분석 결과: 제 I 유형과 제 III 유형

제 I 유형과 제 III 유형이 공공성 인식의 구체적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 보기 위해 〈표 10〉에 Z값의 차이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술문 '공공성은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Q12, 2.744), '공공성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Q27, 2.244) 순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제 I 유형과 제 III 유형 역시 〈표 9〉와 마찬가지로 진술문 Q12과 Q27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 III 유형에서 '공평 부담', '동일한 기회'와 같은 내용적 함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공평 부담에 대한 지향성 및

동일한 기회에 대한 가치가 ‘공리적’ 측면과 상반된 인식을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과정의 공정(Q28)’의 경우, 제Ⅰ유형의 ‘절차적 가치 지향’과 내용적 부합성이 높을 수 있는 반면, 제Ⅲ유형의 ‘공리적’ 측면과는 지향점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의 평등’이 ‘공리성’에 대한 추구와 그 맥을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확장되어야 할 부분이다. 즉, 제Ⅰ유형과 제Ⅲ유형은 전반적으로 ‘공동의 가치(Q12, Q27)’와 ‘개인의 성찰(Q18)’ 등에 있어 내용적 함의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10〉 제Ⅰ유형과 제Ⅲ유형 간 차이가 나타난 진술문(차이 $\geq \pm 1$)

진술문	유형Ⅰ	유형Ⅲ	차이
Q12 공공성은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1.307	-1.437	2.744
Q27 공공성은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1.994	-0.25	2.244
Q28 공공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의 공정을 의미한다.	1.465	-0.584	2.049
Q4 공공성은 국민이 대표를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다.	0.702	-0.517	1.219
Q7 공공성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1.173	0.043	1.13
Q2 공공성은 각 세대가 정의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0.131	-0.922	1.053
Q5 공공성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0.671	-1.678	1.007
Q16 공공성은 모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상태라 생각한다.	-0.35	0.684	-1.033
Q8 공공성은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될 때 실현될 수 있다.	0.057	1.142	-1.085
Q17 공공성은 누구나 사회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	-0.362	0.731	-1.094
Q6 공공성은 투명성을 목적으로 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이다.	-0.964	0.209	-1.173
Q13 공공성은 소수의 사람이 아닌 사회 전체 구성원과 관련된 것이다.	0.79	1.997	-1.208
Q19 공공성은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0.435	0.849	-1.285
Q11 공공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0.663	2.106	-1.443
Q18 공공성은 구성원의 비판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0.997	0.628	-1.624

3) 차이 비교분석 결과: 제Ⅱ유형과 제Ⅲ유형

제Ⅱ유형과 제Ⅲ유형이 공공성 인식의 구체적 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표 11〉에 Z값의 차이를 제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진술문 ‘공공성은 각 세대가 정의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Q2, 2.793), ‘공공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의 공정을 의미한다’(Q28, 1.925) 순으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내용적 구분(Q2), 절차적 측면에 관한 공정성(Q28), 개인의 성찰 수준(Q3)

등에서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Q11, Q15를 살펴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및 ‘일반적 옳음’에 대한 가치에 있어 높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제Ⅱ유형의 ‘성찰성’에 기반한 주체적 관점과 제Ⅲ유형의 ‘공리성’에 기반한 공동체 및 사회 일반의 관점 간의 상반된 입장을 보여준다.

〈표 11〉 제Ⅱ유형과 제Ⅲ유형 간에 차이가 나타난 진술문(차이 $\geq \pm 1$)

진술문	유형Ⅱ	유형Ⅲ	차이
Q2 공공성은 각 세대가 정의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1.87	-0.922	2.793
Q28 공공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의 공정을 의미한다.	1.341	-0.584	1.925
Q3 공공성은 구성원의 비판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1.533	-0.099	1.632
Q4 공공성은 국민이 대표를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다.	0.899	-0.517	1.416
Q1 공공성은 정보는 숨겨지는 것 없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다.	1.346	0.301	1.045
Q5 공공성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0.676	-1.678	1.002
Q19 공공성은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0.177	0.849	-1.027
Q17 공공성은 누구나 사회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때 달성될 수 있다.	-0.304	0.731	-1.036
Q16 공공성은 모두에게 그 혜택이 주어지는 상태라 생각한다.	-0.955	0.684	-1.639
Q15 공공성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이다.	-0.592	1.196	-1.788
Q11 공공성은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0.291	2.106	-1.815

V. 결론 및 논의

현실을 직시하는 개인의 주체적 인식을 반영한 공공성 유형화는 다차원적 속성에 기인한 개념적 논의와는 다른 차원의 공적 함의를 내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가치에서 더 나아가 주체적 인식의 유형화를 통해 각 사회 구성원이 경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공공성의 가치 지향성을 더욱 명료하게 살펴보고자 했다. 다양한 표본 중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적용과 필요성에 대해 그 어느 집단보다 높은 기대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성 인식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분석방법으로서 Q 방법론을 활용했다.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에 포함시켜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보다 연구대상이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자결적 방법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체적 인식을 계량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Watts, 2015).

본 연구는 우선 공공성에 대한 개념적 가치가 다차원적 속성을 내포할 수 있음을 검토했

다. 특히 이 같은 개념적 가치에 관한 논의 가능성은 기존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담론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성을 시사했으며 개념에 대한 구체적 준거 틀에 따라 함의의 방향성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개념적 접근은 선형적인 것으로서 공공적 가치를 통한 사회 실천에 명료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개인의 주체적 인식에 기반한 공공성은 ‘도구성’을 갖춘 것으로 개인의 경험적·사회적 실천가치에 따른 상이한 지향성을 가지적으로 보여준다(김선경·박정민, 2018).

Q 방법론에 따른 공공기관 종사자의 공공성 인식유형의 분석 결과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공공성 인식유형이 도출되었다⁵⁾. 각 유형에 속한 진술문의 속성을 기반으로 제Ⅰ유형은 ‘절차적 공정성에 기반한 공공성’, 제Ⅱ유형은 ‘숙의에 기반한 공공성’, 제Ⅲ유형은 ‘공리주의에 기반한 공공성’으로 명명했다. 나아가 각 유형의 특성을 더 명료하게 살펴보기 위해 차이 비교분석을 시행했다. 각 유형의 차이는 공공성 인식 간의 뚜렷한 구분을 통한 접근이 타당할 수 있으며 다차원적 함의를 지닌 공공성 개념이 개인의 경험적·실체적 인식에 있어선 다른 차원의 주체적 방향성을 내포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절차적 공정성, 숙의 및 공리주의 측면의 내용적 속성에 있어 뚜렷하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공공성에 관한 개념적 함의와는 다른 차원의 공적 지향성 제시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어 과정의 공정성이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궁극적으로 공공성에 부합하기 위해선 최종 가치의 절차적 측면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모든 절차적 과정은 각 세대의 비판적 성찰과 담론을 전제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공공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막연히 공공성을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 ‘선과 악’ 등으로 획일화하려는 시도보다는 시대적 가치와 사회구성원의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담론이 요청된다. 특히 ‘공리주의에 기반한 공공성’의 경우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다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점을 지향하는데,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개념적 검토에 있어 ‘공익적’ 가치와 내용적 정합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개념적 함의와 인식론적 관점 간의 비교적 일치된 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공성 추구에 있어서 ‘최대행복의 원리’ 및 다수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은 현실과 개념을 아우르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공익 추구하고 ‘공민 민주주의’를 위한 지속적인 담론이 필요할 수 있으며 ‘민주적 가치의 공익화’가 국민 다수의 행복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식에 기

5) 반면, 김선경·박정민(2018)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Q방법론을 활용해 개방적 조건 지향형, 비판적 소통 지향형, 분배 가치 지향형, 다양성 인정 지향형, 수단적 토의 지향형 등 5가지의 공공성 인식 유형을 도출했다.

반한 공공성 담론은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성찰을 기반으로 한 개인이 공개적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해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것’을 전제하는데, 공공성의 사회 실천에 진정한 함의를 톺아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공성의 과제 및 새로운 공동체의 질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점 및 향후 개선 과제를 언급하자면, 우선 가장 논쟁적 쟁점이 될 수 있는 건 일부(소수)를 대상으로 도출된 결론이 기존의 R 방법론이 추구하는 일반적 적용에 대한 가능성과 어떠한 방식으로 양립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둘째, Q 진술문들은 가치판단에 따라 기본적으로 상호 연계성 및 점증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며,⁶⁾ 다수가 될 수 없는 진술문을 ‘무엇을 기반으로’, ‘어떻게’ 구성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Q 방법론을 통해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선 관련 진술문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으로 판단되기도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진술문으로 Q 표본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론의 지속적인 논의와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적 차원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Q 정렬이 진술문의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오해의 소지 없이 수행되었는가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대상자는 진술문의 내용 이해를 위해 상당한 시간적 소요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감을 사후 면담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Q 정렬 과정에 필요한 적정시간의 할당문제 및 연구목적과 부합하는 내용적 속성의 객관화·명료화를 위한 척도 구성이 필요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일부를 대상으로 이들이 인식하는 실제적 공공성 인식유형의 종류, 특성 및 함의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왜’, ‘어떻게’ 특정 구성원이 특정 인식유형을 보유할 수 있는지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긴다. 그런데도 공공성은 시대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개념이기에 개인의 주관적 인식을 반영한 정책의 세부적인 방향 설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도영·배수호. (2016). 현대사회에서 유교적 공공성(儒教的 公共性)의 적용가능성 연구. 「한국행정학보」, 50(3): 249-275.
- 김순은. (1999). Q 방법론의 이론적 배경과 비판적 고찰. 「정책분석평가학회보」, 9(2): 201-216.

6) 이와 관련하여 진술문 수를 지나치게 많이 줄이는 경우에 진술문 간의 상호 연계성 및 점증성 확보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 진술문의 타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 김순은. (2007). 영국 지방정부의 성과관리-성과관리 정책의 관점에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4(2): 115-149.
- 김순은. (2010). Q 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1-25.
- 김정훈·이동규. (2021). Q방법론을 활용한 정책기업가 전략에 대한 주관적 인식유형 연구. 「행정논총」, 59(2): 237-266.
- 김필. (2017). 사회적 자원배분의 공정성 인식이 국가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 협업 행정을 조절변수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흥규. (1990). 「Q 방법론의 이해와 적용」.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 김흥규. (2008).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흥규·오세정. (2008). 제3의 공간으로서의 카페: 스페이스 마케팅의 관점. 「주관성 연구」, 93-120.
- 김흥규·오세정. (2011). SNS 이용자들의 심리적 유형: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향해. 「주관성 연구」, 22: 161-177.
- 김흥규·최준환. (2009). 온라인 광고 이용자 인식 유형에 관한 연구. 「광고학연구」, 20(2): 153-181.
- 김동규. (2022). 공공예술의 미학과 임계적 공공성. 「철학연구」, 27-58.
- 김선경. (2020). Q 방법론을 활용한 시민성 인식유형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0(4): 51-70.
- 김선경·박정민(2018), Q 방법론을 활용한 공공성 인식유형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1): 1-21.
- 김선경·박정민. (2020). Q 방법론을 활용한 공동체 주택 인식유형 연구: 대전광역시 꿈꿀통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0(1): 1-24.
- 박현정·김휘경. (2022). 사춘기 자녀와 대화에 관한 부모의 인식 연구: Q 방법론 활용. 「주관성 연구」, 61: 23-43.
- 배수호·김도영. (2014). 유학(儒學)에서의 공공성 논의 행정학 맥락에서 이해하기. 「한국행정학보」, 48(3): 75-98.
- 배수호·홍성우. (2020). 공사관(公私觀) 이해를 위한 통합적 개념틀 탐색과 적용: 제자백가 사상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58(2): 139-172.
- 배수호·최태현. (2021). 공공성 논의의 지평 확대: 타 학문과의 대화. 「한국행정학보」, 55(4): 1-3.
- 백민정. (2022). 정약용의公私 관념과 정치 공공성의 문제. 「민족문화연구」, 97: 241-273.
- 백완기. (2007). 한국행정과 공공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2): 1-22.
- 소영진. (2003). 행정학의 위기와 공공성 문제. 「정부학 연구」, 9(1): 5-22.
- 소영진. (2008). 공공성의 개념적 접근. 윤수재·이민호·채중현(공편). 「새로운 시대의 공공성 연구」. 서울: 법문사. 32-63.
- 임의영. (2010). 공공성의 유형화. 「한국행정학보」, 44(2): 1-21.
- 임의영. (2022). 공공성의 철학적 기초: I. Kant의 사상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8(2): 1-28.
- 임의영. (2023a). 공공성의 사상적 기초: K. Marx의 소외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7(1): 37-57.

- 임의영. (2023b). 공공성의 정치철학적 기초: N. Machiavelli 의 권력관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7(4): 1-28.
- 정정길. (2022). 정책의 대의제적 민주성, 행정의 정치적 중립과 공익수호 역할. 「행정논총」, 60(2): 1-35.
- 정지양·김용희·김은경·유순화. (2021). Q 방법론을 활용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학생 스트레스 유형화. 「청소년학연구」, 28(10): 427-451.
- 조한상. (2009). 기본권의 성격: 주관적 성격과 객관적 성격. 「법학논총」, 21: 225-248.
- Barber, B. (2003), *Strong Democracy: Participatory Politics for A New Age*. Oakland,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enn, S. I., & Gauss, G. F. (1983). *Public and Private in Social Life*. New York: St. Martin's Press.
- Brown, S. R. (1980). *Political Subjectivit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Haque, M. S. (2001). The diminishing publicness of public service under the current mode 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1): 65-82.
- Harvey, O. J. (1997). Beliefs, knowledge, and mean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ceiver. In McGarty, C., & Haslam, S.A. (Ed.), *The Message of Social Psychology*. Oxford: Blackwell.
- Kaul, I. (2005). Private provision and global public goods: Do the two go together?. *Global Social Policy*, 5(2): 137-140.
- McGarty, C., & Haslam, S. A. (2003). *Research Methods and Statistics in Psychology*. Thousand Oaks, CA: Sage.
- McKeown, B., & Thomas, D. (1988). *Q Methodology*. Newbury Park, CA: Sage.
- Moulton, S. (2009). Putting together the publicness puzzle: A framework for realized publicnes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9(5): 889-900.
- Pesch, U. (2008). The publicness of public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 Society*, 40(2): 170-193.
- Rogers, S. R. (1995). Q methodology. In Smith, J.A., Harre, R., & Van Langenhove, L. (Ed.), *Rethinking Methods in Psychology*. Thousand Oaks, CA: Sage.
- Stephenson, W. (1936). The inverted factor technique.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26: 344-61.
- Stainton, R. J. (1995). Non-sentential assertions and semantic ellipsis. *Linguistics and Philosophy*, 18: 281-296.
- Watts, S. (2015). Develop a Q methodological study. *Education for Primary Care*, 26(6): 435-437.
- Watts, S., & Stenner, P. (2012). *Doing Q Methodological Research: Theory, Method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ABSTRACT

Publicness Perception Types of Employees in Public Enterprises: Using the Q methodology

Seoho Lee, Dasom Kim, Sung-Woo Hong & Suho Bae

This paper goes further than the previously discussed publicness discourse and seeks to examine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ness based on an individual's subjective perception. Specifically, we aim to derive public interest implications for our society by targeting employees in public enterprises who can expect more public value than any other occupational groups, and typifying their perceived publicness. For this purpose, we used the Q methodology, which can quantitatively understand an individual's subjectivity. The specific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erception of publicness is largely divided into the three types. Type I was named 'Publicness based on procedural fairness', Type II was named 'Publicness based on deliberation', and Type III was named 'Publicness based on utilitarianism'. Respectively, each type of publicness emphasizes the process aspect, the reflection and deliberation aspect, and the public interest aspect in recognizing publicness. This typification exhibits different content properties from the discourse of publicness according to conceptual implications, thus allowing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orientation value of publicness that reflects an individual's subjectivity and providing useful social implications in the field of public policy.

【Keywords: publicness, publicness perception, employees in public enterprises, Q methodology】